



**2016년 01월 4주차**

## ■ 연구원 소식

###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주대 특성화 사업단 산학협력 워크숍

- 날 짜 : 2016.01.21.(木)
- 장 소 : 전주대학교 근처 정인가든
- 내 용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기업과 대학의 상호 제휴를 통하여 윈윈하는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1일에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K-History 특성화 사업단에서 주최한 산학협력 워크숍에 사무국장과 행정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 연구원 자료실 장서 정리

- 장 소 : 연구원 자료실
- 내 용 : 금주 1월 18일부터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특성화사업단 현장실습생과 함께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자료실에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구원 회원에게 도서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오며, 언제든지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따뜻한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1월 25일(月) : 주간회의
- 01월 25일(月) ~ 29일(金) : 연구원 자료실 정리

**■ 역사속의 오늘**

**○ 슬픈 역사의 반복 - 1973. 1. 25**

: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18년 철권통치를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이른바 박정희 후광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했던 말이지만, 그의 딸이 취임 후 아버지 집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미치도록 잊혀지길 바라고 누군가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일인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 사건이 43년 전인 1973년 1월, 유신 독재 체제가 막 들어섰을 때 일어났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지 만 100일이 되던 날인 1973년 1월 25일, 전남 목포항을 출항한 여객선 한성호가 침몰했다. 18명이 숨졌고 43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이다.

세월호 사건과 한성호 사건은 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침몰 장소가 둘 다 진도 앞바다이다.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 관매도와 병풍도 사이에서 침몰했고 한성호 침몰 장소는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18km 떨어진 곳이다.

침몰 직후에 현장에 도착한 구조선의 행적도 비슷했다. 한성호 때도 구조선은 스스로 탈출해 갑판 위로 올라왔거나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사망·실종자 대부분은 선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선장을 비롯한 상당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것도 같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선장이 아닌 입사 4개월 된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던 것처럼 한성호 침몰 당시에선 선장이 아닌 무자격 갑판원이 파도 속에서 배를 몰았다. 침몰 직후 구조 당국의 구조 실패 역시 판박이였다.

한성호 사건 당시 언론들은 현장의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어 구조와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한성호 참사 당일 당시 박정희 대통

령의 행적도 의문이라 전해진다. 대통령기록관에는 1973년 1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종전 기본 대비책 보고를 받았다는 단 하나의 일정만 기록되어있고 한성호 관련 보고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찾을 수 없다. 세월호와 한성호 두 사건은 배가 출항하는 과정에서 다투어 있다.

세월호는 출항 전 짙은 안개로 시정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일 때는 출항이 금지되지만 가시거리가 500m에 불과한 상황에서 시정주의보가 해제됐고 세월호는 출항을 강행했다. 한성호도 비슷했다. 한성호가 출항하기 이틀 전부터 폭풍주의보로 인해 연안 여객선들의 운항이 정지됐지만 한성호는 선장이 항로를 조정한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출항했다가 참사를 당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는 과적을, 한성호는 정원초과를 했다는 사실과 과적과 정원초과가 용인되는 비리사슬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건의 구성요소는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무리한 출항, 과적,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동일성이 발견된다. 구조적인 문제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서 참사가 반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반복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43년 전 박정희 정부는 한성호 참사의 책임을 선주와 선원들에게만 물어 선주 2명과 선장과 선원들을 구속하고 처벌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 상황도 지금까지는 다르지 않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숨어 있는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43년 전 참사의 역사가 2014년에 반복됐다는 오명을 씻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아직도 세월호냐며 인상을 찌뿌리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무 것도 밝혀지고 해결된 것이 없는데 어찌 잊을 수 있냐는 것.

정부를 믿고 음모론을 배격하자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음모론이 일어날 조건과 상황을 배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우답(愚答)이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람중심의 세상으로 가는 길이란 믿음은 철저하고 끈질기다.

### ○ 타지 못한 목포행 완행열차 - 1960. 1. 26

: 1960년, 그 해 설날은 양력으로 1월 27일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민족의 대이동'은 매한가지라서 그 해에도 서울역은 설을 쇠러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요즘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이야 설 한달 전에 인터넷이나 현장을 통해 표를 예매하고 차분하게 당일 역에 가면 되지만 1960년 당시에는 서울역 매표소에서 줄지어 선 채 표를 사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

서울역은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로 가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총 집결지였다. 당시 그 아수라장의 귀성전쟁에 비하면 요즘의 귀성전쟁은 “어 사람이 좀 많네” 정도의 가벼운 러시아워 수준일지도 모른다.

1960년 1월 26일은 그런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날이었다. 내일 고향에 이르지 못하면 안된다는 각오로 귀성전쟁에 뛰어든 불퇴전의 전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울역을 메우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신문기자는 아래와 같이 기억한다.

**“1960년 1월 26일, 이 날은 음력 설달 그믐날로,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서울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시골로 향하는 귀성객들을 스케치한 후 신문에 쓸 사진들을 마감하고 나니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회사로 돌아왔는데 웬지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판매하는 기차표는 700여 장이 남았는데 이를 구입하려고 줄을 선 승객들은 대충 잡아도 1,500명은 훨씬 넘어 보였다. 표를 구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 승객들을 헤집고 두 번째 개찰구 쪽으로 향하는 순간, 갑자기 '우당탕'하며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개찰구 너머에 서너 사람이 쓰러지며 인파가 계속 밀려들고 있었다. 좁은 개찰구에 워낙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 계단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압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사고는 서울 발 목포행 밤 10시 40분 호남선 601열차가 서있는 제3홈 계단과 통로에서 발생했다. 개찰구를 넘어 플랫폼으로 향하니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한국일보 2011년 1월 13일, 정범태의 사진으로 본 한국현대사)

훗날 그는 회고에서 특종을 위해 사람을 구하는 대신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날 참극의 희생양이 된 고인들의 명복도 제대로 빌지 못했다 이야기했지만 그가 아니었으면 그날의 참사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서울에서 10시 50분에 떠나는 호남선 열차의 표 판매량은 평소의 세 배였다. 철도청이 귀성 대목을 맞이하여 입석표도 동날만큼 표를 팔아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사람들을 태우려면 당연히 기차를 더 연결해야 했다. 객차들을 부산하게 연결하여 완성한 시간은 불과 출발 5분 전. 결국 출발 5분 전에 이르러서야 개찰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4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역무원의 거친 목청과 통제 앞에 육상 선수 스타트 자세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개찰 신호와 함께 개찰구를 향해 내달았다는 뜻이다.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는가.

좌석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맹렬하게 달렸다. 좌석이 있다 한들 뒤늦게 탔다

가는 좌석 근처도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두 발로 버티기는 고문을 당해야 할 판이었다. 모두가 럭비 선수가 됐고 육상 선수가 됐다. 노약자들은 버둥거리며 뛰었지만 젊은이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때 계단 한쪽에서 한 명이 크게 비틀거리더니 허우적거리며 넘어졌다. 발을 헛디딘 것이다. 한겨울이었고 계단 곳곳엔 얼음도 맺혀 있었기에 넘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날 사고로 31명이 압사당하고 4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고향에 가고자 목포행 완행열차에 오르려했으나 그러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 1년여 간 “역사속의 오늘”을 애독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재되던 내용이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 우리 현대사의 슬픔과 분노, 회한과 서러움에 집중된 것은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고 중립이라는 포장으로 수구적 입장을 여과 없이 대변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의 동일함을 견지하는데 부족한 글이었지만 늘 애정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회원분의 따스한 마음, 잊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 연구원 뉴스레터는 보다 다양한 필진과 회원들에게 열린 공간임을 천명하며 자유로운 원고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2월부터 개편될 연구원 뉴스레터에도 변치 않는 채찍과 질타로 끈끈한 애정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속의 오늘”은 이전의 한국사를 넘어 국내외 역사를 망라해 격주 한편의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